

황과 해양감시선 제원은 다음 표와 같다.

〈표1-173〉 광양시 방제 장비 보유현황					
구분	오일웬스(m)	유처리제(ℓ)	유흡착제(kg)	유회수기(대)	방제선박(대)
계	2,580	6,687	780	-	1
광양시	780	1,527	230	-	1(15톤)
여수해양경찰서	1,040	1,620	280	-	-
광양제철소	120	2,000	200	-	-
한국석유	640	1,540	70	-	-

자료 : 광양시 환경관리과, 2002

〈표1-174〉 해양감시선 제원					
선명	선질	톤수	속력	건조비(천원)	건조년월일
전남 제 515호	F·R·P	15톤	최고29노트 평속20노트	293,726	'97. 2. 25

자료 : 광양시 환경관리과, 2002

제3절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행정기능 강화

1. 「푸른광양21」 추진

1) 추진배경 및 과정

(1) 추진배경

1995년 1월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된 전형적인 전남 동부 지역의 산업중추 도시로서 지리적인 여건상 세계교역 중심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특히 국제적인 컨테이너항의 입지적 특성으로 동북아 및 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을 요청 받고 있다. 그런데 그간 국가 주도의 개발전략에 따른 광양시의 산업화, 도시화 진행은 공단이 들어선 특정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에까지 많은 자연환경 악화를 야기하고, 동시에 생활공간의 와해와 생산공간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공간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 토지이용의 변화, 인구 전·출입에 따른 지역주민간 갈등표출,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전환 등 많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었다. 특히 자연환경의 훼손과 악화는 광양만 청정해역의 오염과 매립,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와 수자원 문제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무계획적으로 방치한다면 지역사회 존립기반의 상실과 생활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큰 자원의 상실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1-129 : 푸른광양21 추진협의회 창립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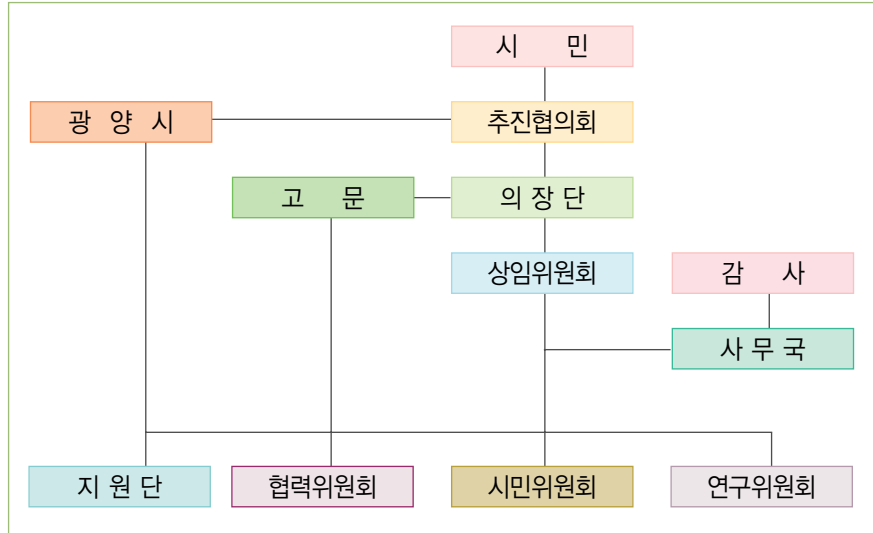
이러한 자연환경의 악화와 구조적 문제들은 이제 그동안의 경제개발에 힘입어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선언과 행동강령 및 실천계획들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고자 ‘지역의제21’ 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많은 도시들이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브라질의 리우 정상회담에서는 환경보전과 개발의 문제를 양립시켜 ‘지속 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의 실천을 목표로 21세기를 위한 과제와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의제21’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local Authorities Initiative in Support of Agenda21)에 있어 각종 환경문제의 해결책 대부분이 지역적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화된 자연환경을 치유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민의 행동강령과 실천의지를 담아 지방의제 푸른 광양21을 채택하게 되었다. 『푸른 광양21』에서는 광양지역의 자연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의 경제, 교육, 문화(사회복지, 문화재,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생활환경의 지표를 조사·정리하여 2010년까지의 분야별 행동강령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천에 옮겨냄으로서 21세기에는 지역민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위되며, 사회적으로는 인간애가 흐르고 활력 있는 광양이 되도록 노력한다.



악화된 자연환경을 치유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민의 행동강령과 실천의지를 담아 지방의제 푸른 광양21을 채택하게 되었다.

(2) 추진과정



푸른 광양21 추진협의회 기구표

21세기 광양시가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교육·문화·환경 도시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복지 등 사회환경과 다양한 자연환경의 토대 위에서 경제발전과 지역민의 생활이 심리적·정서적 풍요와 여유를 추구하며 인간다운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분야별 실천지표를 설정하여 시민, 기업, 행정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푸른 광양21』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다.

광양만 일대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몇 해 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정작 주요 환경운동단체와 행정기관의 관심만이 있었을 뿐이고, 이들 기관과 단체의 대응도 사후 처방 성격이 짙었다. 이러한 대응에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행정과 민간단체, 시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자구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8년 상반기 『푸른 광양 21』의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논의과정에서 광양시의 ‘지역의 제 21’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푸른 광양 21』 추진계획(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광양시의 현황을 분석하고, 광양시를 교육·문화·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각종 사회지표를 개발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단체에 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푸른 광양 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여기에는 광양시, 광양시의회 및 환경단체, 시민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종교단체, 직능단체, 광양상공회의소, 기업체, 분야별 전문가 집단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998년 7월 31일에 결성되었다.

『푸른 광양 21』추진협의회는 광양시장을 비롯한 관련기관단체장 6명의 고문을 두어 협의회운영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임의장을 포함한 3명의 의장단 및 20(2명의 감사 포함)명의 상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상임위원회 산하에는 시민위원회, 연구위원회 및 협력 위원회를 두었고,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이 있다.

2) 추진협의회 구성

추진협의회는 각 조직별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의장단은 대외적으로 협의회를 대표하며 추진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상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추진협의회의 주요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제반의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을 의결하고, 홍보 및 교육 행사 총괄, 환경소식지 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푸른 광양 21』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여 광양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지침이 시민,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광양시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추진협의회에 사업에 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기구로서 시민의 요구사항 수집과 시민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대한 시민합의를 도출하며, 한편 『푸른 광양 21』의 시행과정과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협력위원회는 광양지역의 기업인을 중심으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기업이 수행해야 할 행동지침을 효율적으로 전달·실천한다. 또한 추진협의회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연구위원회는 경제(농업 포함), 문화, 교육, 사회복지, 교통, 도시계획, 환경,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며, 광양시의 현황 및 기초조사, 문제점 파악,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각 부문별 연구사업을 전개하며, 협의회



협력위원회는 사무국과 협의하여 시민공청회나 환경 및 지역발전 관련 심포지엄 등의 개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고있다.

의 목표달성과 관련된 제반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시민위원회와 원활히 협조하여 연구결과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을 두어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지원을 통하여, 연구결과가 행정계획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사무국과 협의하여 시민공청회나 환경 및 지역발전 관련 심포지엄 등의 개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고있다.

3) 기본이념

1.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2. 지역주민들의 자주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한다.
3.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자치행정을 편다.
4.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기본으로 산업을 진흥한다.
5.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든다.
6. 교육, 문화, 환경, 보전도시로 성장·발전한다.
7. 지역사회, 기업, 행정이 상호 협조하여 지역 공동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8. 자연 자원의 수요를 최소화하고, 재활용하는 생활구조를 조성한다.
9.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환경개선 비용을 최소화한다.
10. 지역 내 모든 현안문제들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기본으로 한다.

4) 행동 원칙과 실천 지침

아래의 행동원칙에 입각하여 시민, 기업, 행정이 실천하여야 할 192가지 실천 지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절수를 생활화한다.
2. 친환경적 하천을 조성한다.
3. 지하수 보전에 노력한다.
4. 절전을 생활화한다.
5. 녹색교통 운동에 동참한다.
6. 맑은 대기보전에 노력한다.

7. 소음진동과 악취 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8.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한다.
9. 도시 녹화운동에 동참한다.
10. 토양보전운동에 동참한다.
11.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2.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1) 배경

섬진강은 남한의 5대 강 중 유일하게 수질과 생태계가 잘 보존된 환경기준 I 등급으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역을 유지하고 있어 수계권 지역민의 식수로, 농업·공업용수로, 휴식공간, 관광자원으로 그 활용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생활하수·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로 수질이 날로 악화되는 추세에 따라 섬진강의 보전과 환경친화적 개발로 향후 초래될 수자원의 오염과 자연경관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기대하고 잘 보존된 수자원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우리세대 복지증진은 물론,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섬진강 수계권의 모든 주민과 기업, 자치단체 등의 『섬진강의 보전만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해 주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에 수계권의 유관기관이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활동중인 민간환경보전단체, 사회봉사단체 및 언론과 공동연대를 통하여 『섬진강 지키기 운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2) 구성 및 운영방향

섬진강 수계권 3도 8개 자치단체와 3개 특별기관이 광역행정협의회로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지키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1997년 12월 25일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표1-175〉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현황				
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특별기관
8개시·군·3개 특별기관	광양, 순천, 곡성, 구례	순창, 남원	하동, 남해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관리청, 한국수자원 공사 섬진강댐관리단

자료 : 광양시 환경관리과, 200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방향은 섬진강 수계의 환경보전업무는 환경부 소관으로 행정적인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으로 민간환경보전단체와 공동연대를 통하여 섬진강 지키기 인식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섬진강 수질보전을 위한 관계기관 역할 분담과, 섬진강 수계 및 연안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습 대처방안을 강구하며 기타 수질보전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게 되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구성경과 및 운영을 일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76〉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996. 11. 30	7개시·군 규약안 의회의결 완료
1997. 12. 4	제3차 실무협의회 회의(창립총회 개최일정 확정)
1997. 12. 26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창립총회 개최(광양시)
1998. 7. 15	제4차 실무협의회 회의(정기총회 개최일정 확정)
1998. 8. 27	제2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1999. 1. 28	제5차 실무협의회 회의(의결사업 추진방안)
1999. 4. 30	제3차 정기총회 -섬진강 토속어종 방류사업실시(순창군)
1999. 12. 23	제4차 정기총회
2000. 5. 25	제5차 정기총회
2000. 12. 15	제6차 정기총회
2001. 6. 8	제7차 정기총회
2001. 12. 27	제8차 정기총회(순창군을 회장 군으로 선정)

(3) 운영요령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의 소집은 정기회의 당시 회장인 시장(군수)이 직권으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성기관의 개최요청을 받아 당시 회장인 시장(군수)이 소집하며, 협의 안건 준비는 정기회의의 경우 당시 회장인 시장(군수)이 구성 시·군으로부터 안건을 받아 정리하고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구한 시·군이 안건을 마련하여 당시 회장인 시·군

에 통보를 하면 된다.

실무협의회 사전협의는 안건이 구성기관 전부에 관련된 경우 당시 회장이 시·군 실무위원 주재 하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안을 마련하고, 안건이 일부 시군에만 관련된 경우 회의 개최를 요구한 시·군에 실무위원이 관련기관과 미리 논의하여 협의안을 마련한다. 구성원인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무협의회에서 미리 안건을 검토, 협의안을 도출한 다음 시장·군수가 결정, 합의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또한, 안건협의는 안건에 관련된 시·군의 전원 찬성으로 결정하고 간사장은 회의록과 결정사항을 정리, 구성 시·군에 통보하고 구성·시·군은 협의사항을 이행하면 된다.

2) 운영실적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된 후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섬진강수계권 수질측정망 확대운영이다. 당초 수질 측정망은 4개시·군 18개소에서 9개 기관 26개소로 확대되었는데 순창이 2곳, 곡성 1, 순천 2, 하동 1개소이고, 99년 3월 22일에는 7개시·군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121명으로 구성된 섬진강민간환경감시대를 발족하였으며, 섬진강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포획물을 철거하고, 토속어종 방류사업, 정책건의서 채택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모범적인 수질개선 사례로 인정받아 타 기관으로 전파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섬진강 골재채취사업 휴식년제 도입
- 실뱀장어 불법포획 단속
- 대규모 개발계획 사전 검토방안 추진
- 다압 취수장 취수방법 개선 건의
- 섬진강 토속자원 조성사업 (사업비 1억3천만원, 은어 참계방류)
- 섬진강 수계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74개소 29,516백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 (단속업소: 908개 업체)
- 섬진강 환경지 제작 (1,200부, 10,362천 원)
- 섬진강 분류 치천에 어도설치(49개소)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섬진강 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된 후 그동안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섬진강 수계권 수질측정망 확대운영이다.

앞으로도 마을단위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설치하고 배출업소 합동 단속, 환경단체 등과 섬진강 수증정화활동, 광영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등 섬진강 살리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3. 환경교육



사진1-130 : 청소년 여름환경 학교운영

환경교육은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뉘어지는 데 학교교육은 학생에 대한 환경교육과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교육은 환경관련 공무원 및 환경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육으로 분류된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편의상으로 나뉘어진 것이지 분리해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은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은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1) 학교 환경교육

각급 학교에서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교양과목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환경부에서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일선학교에 환경과목의 선택을 확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 및 사회인식의 제고에 힘입어 광양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도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시범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매년 2개교씩 변경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옥룡북초등학교, 진월남중학교)

이들 시범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연보호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폐품활용 및 학생자유토론 등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환경시범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매년 2개교씩 변경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걸돌고 있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98년 이후 환경관련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고있다). 물론 유사한 과목의 교사가 대체하여 환경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환경관련 과목이 수학능력 시험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는 미흡하다.

한편, 대학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환경전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관련 학과의 개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광양대학의 환경위생과, 한려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산업대학원에는 환경공학과가 석사과정에 설치되어 있다. 각 대학들이 환경교육은 환경관련 학과의 정규과정 뿐만 아니라 교양강좌 등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해마다 변경할 경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자주 바뀌어 각급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착되기도 전에 형식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1개교(옥룡 중학교)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은 거의 없다.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여야 하지만 시 차원에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운영실태 및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심사하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각급 학교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환경관련 교사를 확보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부터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환경교육이 보다 효과적 일 수도 있다. 한편, 교통이나 입지요건을 고려한 기존의 폐교된 초등학교나 그 밖의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을 이용하여 “환경교육장” 또는 “환경공원”을 조성하고 소풍, 견학,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진1-131 : 청소년 환경 순회교육

학생들에 대한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환경교육은 비교적 저조한 수준이지만 98년부터 환경관련 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환경전문교사가 배출되면서 담당교사의 부족현상이 사라지게 되어 환경교과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 이전의 유치원 교육에서는 현재로서 환경관련 교육의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담당교사들에 대한 교육 또한 미비한 상태이다. 환경교육은 인간의 삶에 관한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유치원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학습이 시작되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연계되어야 하며,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유치원 단계부터의 프로그램개발과 교사 양성 및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표1-177〉 광양시 학교환경교육 현황			
구분	지역	학교명	비고
환경교육시범학교	진상면	진상 종합 고등학교	
환경교육시범학교	옥룡면	옥룡중학교	교육청지정
환경관련 학과 설치	광양읍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위생과

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홍보를 위하여 교수, 민간단체, 공무원 등 5명을 강사로 위촉하여 환경교육·홍보단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환경교육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학생들만 응하고 있다.

〈표1-178〉 광양시 환경교육·홍보단 운영실적					
연도별	강사수(명)	교육대상	횟수	교육인원(명)	비고
계	13		31	4,615	
2000	5	학생	10	1,685	
2001	8	학생, 군인, 민간인	21	2,930	

자료 : 광양시 환경관리과, 2002

또한, 시에서는 2001년부터 청소년 환경보전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환경지킴이단을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제1기에는 6개교 169명으로 구성하여 자연정화활동, 공원 나무이름 달아주기, 현장체험학습 등 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교에서부터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2) 사회환경교육 및 홍보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대학의 환경분야 관련 교수가 참여하는 민방위소양교육 중 환경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환경보호단체와 협의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동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기업체 및 각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산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사회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환경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환경분야의 공무원이 순환직으로 자주 교체하여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분야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관할 산업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감독·감시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보급에도 소홀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원의 소양교육 및 민간환경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민환경강좌 등을 통하여 주부,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환경현황과 환경지식을 소개하는 사회환경교육을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평생교육이기에 우리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비중을 두기로 하였다.



사진1-132 : 광양시 기업체
임직원 환경교육

환경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보전 홍보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환경오염 실태, 각종 환경시책 등 환경정보의 공개로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 보전의식을 함양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역량 배양과 환경윤리관을 확립하는 데 있다. 다양한 홍보

대책의 마련과 이것의 효과적인 수행이 없이는 환경정책 및 환경행정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은 또한 사회환경교육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동안 시에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학생들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얻었다.

〈표1-179〉 광양시 청소년 환경학교 운영실적				
년도	회수	참가인원	교육내용	교육방법
2000	1	중학생 150명 (8. 16~8.21)	· 환경기초상식 · 환경퀴즈대회 · 환경만화상영 · 환경노래배우기 · 환경기초시설견학 · 섬진강, 백운산 생태계체험등	이론과 현상 체험 교육
2001	2	중학생 120명 (7. 27~7. 29)	· 환경기초상식 · 환경퀴즈대회 · 환경만화 상영 · 환경노래 배우기 · 환경기초시설 견학 · 장흥 회진 갯벌체험	

자료 : 광양시 환경관리과, 2002

4. 환경보전 시민연대 운동

1) 민간환경단체 현황

광양시에는 7개 민간환경보호단체가 있으며, 활동하는 회원 수는 582명에 이른다. 그 동안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환경보전 실천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은 전문성 부족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결여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환경단체의 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별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환경단체의 통합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단체의 난립이나 전문성 결여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오염원 감시, 환경보전 및 시민계몽활동 부문에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 감시단운영 및 생활환경에서 오는 환경보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행사, 그리고 포상제도의 신설 등. 아울러 민간단체에서는 시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자칫 이익집단이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그 대의를 잃으면 시민단체로서의 건전한 비판의식과 자생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조직력을 확대해야 한다. 광양시 민간환경단체는 타 지역보다 열심히 자연정화활동 및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 시에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1-133 : 광양민간환경단체협의회 시민한마당

표1-180 광양시 민간환경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소재지	설립일	주요활동내용	비고
환경보전 송암회	백명현	47	광영동 774-5	'86. 12. 5	· 섬진강발원지 탐사 등 · 환경보전(정화) 활동 · 환경보전응변대회(세미나) 개최 · 환경보전회보발간 (메아리)	
한국수난안전 협회광양 지구대	신동국	24	광영동 758-4		· 섬진강수증정화, 바다 살리기 운동 · 우리물 살리기 (수어뎀 정화 등) · 자연정화, 인명구조활동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협의회	박종윤	48	옥룡면 죽천리 554	'95. 1. 1	· 자연정화활동 · 옥룡 동백림 보전 활동	
명예환경감시협의회	김갑석	57	광양읍 칠성리	'95.1. 1	· 환경오염행위 감시 활동 ·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광양환경운동 연합	백관찬 이서기	246	중동 1449-1	'97. 6. 19	· 환경문제 환경운동을 위한 조사연구 · 환경문제의 대안정책 개발 및 제시 · 환경의 올바른 인식 교육홍보	
섬진강 민간 환경감시대	이덕용	20	진월면 망덕리 51-1	'01. 1. 15	· 섬진강 수계배출업소 오염행위 감시 · 섬진강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감시등	
푸른광양21 추진협의회	황석봉	140	중동 1449-1	'98. 8. 30	· 푸른광양21 추진	

자료 : 광양시 환경관리과, 2002

2) 환경보전기금 조성

자치환경행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양시에서는 환경정책기본조례를 제정(1997. 7. 24) 한 바 있고,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2002. 1. 16)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2억 원씩을 확보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1억 원씩을 확보하여 2006년도부터 시민홍보,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을 우선 사업으로 실시하게 된다. 참고로 2002년 조성 액은 209,000천 원이다.

3) 환경경영체제 [ISO14001] 인증 추진



사진1-134 : 푸른광양21과
광양환경운동
연합의 환경
캠페인

국제적으로는 환경행정 추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로 시민이 신뢰하는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도시화, 산업화와 차량의 지속적 증가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욕구가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권 확보를 위한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환경보전활동은 사후적, 소극적, 단순업무의 반복과 배출규제 중심의 관리에 치중되었고, 환경보전업무 담당 조직에서만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앞으로는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사전적, 능동적, 예방적 활동위주로 나아가야 하므로 환경경영체제의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여 물류중추도시로의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